

김별아의 문학과 삶



우리, 정말 안녕한가요?

춥고 긴 겨울이다. 겨울은 겨우겨우 나서 겨울이라지만, 겨우겨우 버티기가 녹록지 않다.

“안녕을 하십니까?” 대단한 선동이 아니었다. 과격한 구호도 아니었다. 그냥 물었다.

요즘 같은 첨단 시대에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한 글이 아니라 종이 위에 오롯이 써내려간 손 글씨여서 더욱 그랬을 테다.

그토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영화란 결국 사영화(私營化)를 말한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쓰지 않으려 해도 쓰지 않을 재간이 없는 생존의 기본 조건에 ‘주인’이 생기는 것이다.

가스, 수도 등 공공재의 민영화 혹은 사영화는 이미 그것을 시행한 외국의 예로 볼 때 그 ‘주인’을 제외한 절대 다수에게 재상이나 마찬가지다.

아흔아홉 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의 것을 마저 빼앗으려 덤벼드는데, 어찌 안녕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뉴스는 좀처럼 안녕하지 않은 세상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

가실 말이 궁금한 것은 그들의 끝없는 혹독한 탐심이다. 얼마나 더 가져야 할까? 가진 만큼 행복해질까? 혼자만 잘 살아서 정말로 그렇게 행복할까?

“아니, 어떻게 그 얇은 옷만 걸치고 추위를 견디시오?” 그러자 거지가 대답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리도 얼굴은 내놓

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저는 몸 전체가 얼 굴이랍니다!”

몽테뉴는 이어 이탈리아의 플로렌스 공작과 어릿광대의 일화를 소개한다. 어느 날 플로렌스 공작이 빈약한 옷가지만 걸치고 익살을 부리는 어릿광대에게 자기도 견디기 힘든 추위를 어떻게 견디고 사는지 물었다.

“나리,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갖고 있는 옷을 몽땅 꺼내 입고 다녀보십시오. 추위로 고생하는 일이 절대 없으실 겁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온몸을 얼 굴 삼아 드러내고 찬바람을 맞아왔다. 갖고 있는 옷을 몽땅 꺼내 입고다니며 추위에 맞서 왔다. 하지만 살을 에는 추위에도 활력과 웃음을 잃지 않았다.

일화 속의 거지와 어릿광대는 가난하다. 그런데 소설가 공산옥의 말마따나 ‘가난’과 ‘빈곤’은 다르다. 예전에 우리는 내남없이 가난했다. 그래서 가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종교칼럼



이원재 광주주무교회 목사

새 술은 새 부대에

당장은 통할지 모르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면 훗날에 밝혀질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서로 다른 책임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 맡긴 종자돈으로 장사를 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한 사람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라고 칭찬을 들었고, 한 사람은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으며 있는 것까지도 빼앗김을 당하고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흑자의 삶을 살았다면 약하고 게으른 종은 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해 나의 삶은 흑자였는가? 적자였는가?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은 왜 적자의 삶을 살았

는가? 그것은 주인의 의도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장사란 꼭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종자돈까지 날릴 수도 있습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 두었기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해를 맞이하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시는 재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주인이 맡긴 일에 충실했는가?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방관함으로써 손해를 본 일은 없었는가? 아쉽다. 후회스럽다. 생각도 하기 싫다.

새해에는 백성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상대를 존경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의회를 운영해 선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기고

FTA, 농업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있어 쇠고기와 유가공품 등 관세가 철폐되는 축산물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발표를 앞둔 한·호주 FTA는 물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상황이다.

국제무역 협상에서 제조업 분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업·농촌을 경시하고, 이로 인해 생명산업인 농업이 비장 끝에 내몰리면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최근 한·중 FTA는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모델리터를 바탕으로 양호초안 논의까지 8차 협상이 끝났다. 지난해 12월 4일 한·호주 FTA가 전격 타결돼 양국에서 국회비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2015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9차 협상에서 제시할 초민감품목에 이 지역 주요 농축산식품이 다수 포함되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는 2012년 호주와의 교역에서 농림축산물 무역적자가 26억 9000만 달러에 이르고, 매년 적자 폭도 늘어나는 추세에

3농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통해 부자 되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 행복한 농업인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축산물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선제적 방역 등을 통해 친환경 안전축산물을 생산하면서 산지 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여 부가가치 제고는 물론 축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서 FTA와 같은 국제무역 협상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희생불능의 상태로 내 몰수도 있다. 정부에 대해 산업간 특수성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고 균형된 시각으로 무역협상에 나서고,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을 매년 증액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세계 8위 수준이고, 올해도 벌써 3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하여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제무역 질서와 흐름을 도외시할 수 없다. 현실을 제대로 보고 미래를 예견하여 능동적으로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고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亞문화전당 완공 전 현안과제 해결해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10월 완공된다. 이 전당은 작공 10여 년 만에 ‘지각 존공’을 하게 됐지만 아시아 문화발전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문화전당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 난제들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문화전당에서 운용할 전시·기획·운영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콘텐츠안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대다. 문화전당 내부시설은 콘텐츠에 맞춰 배치되는 만큼 콘텐츠가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 지원은 해마다 ‘뿔뿔 에 산’에 그치고 있으니 걱정이 앞선다. 하드웨어 격인 건물만 완공하고, 소프트웨어인 콘텐츠가 마련되지 않으면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다.

문제를 빚고 있는 문화전당 운영 주제 문제도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화에 대해 지역민과 광주시가 반발하면서 절충안인 ‘법인 위탁을 전제 로 하되 정부의 재정 지원을 특별법에 명문화하는 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결론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추진해온 역점사업이다. 정부는 문화전당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서 문화와 산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 국회에서는 문화전당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재정이 수반되는 명문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제 끝 국립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국립해상공원 화재에 속수무책이러니

구랍 31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인 진도 관매도 야산에서 불이 나 잠복 등 0.5ha가 소실됐다. 피해는 미미했지만 이 불을 모두 끄는 데 무려 17시간이나 걸렸다고 한다.

관매도에 갖춰진 산불진압 장비는 등짐펌프 20대, 소형 펌프 1대가 전부인 데다 인력도 현장관리센터 상주 직원 2명뿐이었다니 예고된 인재(人災)나 다름 없을 일이었다.

관매도에 갖춰진 산불진압 장비는 등짐펌프 20대, 소형 펌프 1대가 전부인 데다 인력도 현장관리센터 상주 직원 2명뿐이었다니 예고된 인재(人災)나 다름 없을 일이었다.

관매도에 갖춰진 산불진압 장비는 등짐펌프 20대, 소형 펌프 1대가 전부인 데다 인력도 현장관리센터 상주 직원 2명뿐이었다니 예고된 인재(人災)나 다름 없을 일이었다.

관매도에 갖춰진 산불진압 장비는 등짐펌프 20대, 소형 펌프 1대가 전부인 데다 인력도 현장관리센터 상주 직원 2명뿐이었다니 예고된 인재(人災)나 다름 없을 일이었다.

無等鼓

1913년 5월29일,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 모인 이들은 유럽의 가장 고상하고 교양있는 관객들이었다. 하지만 공연이 시작되고 높은 첫 음이 울리자마자 관객들은 이계 음악인가 싶어 당황했다.

발거벗은 무용수는 무아지경에 빠진 몸짓을 하고, 광란의 음악은 이어졌다. 비명을 질러대는 관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극장장은 공연 중에 불을 끄지만 무용수의 춤은 멈추지 않았다.

객석이 앉아있던 마르셀 뒤샹은 나중에 이 낱의 ‘아우성과 날개로 온 부르짖음’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

드뷔시와 라벨, 안무가 니진스키 역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초연 현장을 또렷이 기억했다. 파리에서 인기 있는 작은 모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여자는 이날 스트라빈스키를 처음 만났고, 훗날 그의 연인이 된다. 그녀의 이름은 코코 샤넬이다.

같은 해 1월,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진행하는 오스트리아 빈의 ‘수요심리학회’ 모임에 한 여자가 나타난다. 니체와 릴케, 프로이트 등 ‘정신적 천재들’을 쓰러트린 여자다. 그녀의 이름은 루 안드레아 샬로메다.

‘1913년 세기의 여류’(문학동네)은 흥미로운 책이다. 독일 예술사가인 플로리안 알리스는 카프카, 릴케, 클림트, 비트겐슈타인 등 300여명을 등장시켜 100년 전 유럽의 풍경, 특히 문화와 여성사를 흥미롭게 복원해 냈다.

1913년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D.H 로렌스의 ‘아버지와 아들’이 탄생하고, 파카스와 브리크의 입체 미술이 자리를 잡은 해다.

또 뒤샹의 기성 예술품 ‘자전차 바퀴’가 파리에서,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이 모스크바에서 첫선을 보인 해이기도 하다.

새로운 기대를 품게하는 해가 밝았다. 무엇보다 작공 9년 만에 자태를 드러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모습에 기대감이 크다. 또 광주를 비롯해 대한민국 문화계에서는 을 한해 어떤 예술인들이, 어떤 재미있는 작품들을 생산해 낼 지 궁금하고 설렌다.

오랜 세월 뒤, 유럽 문화·지식사를 흔들던 1913년처럼 2014년도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문화사의 ‘기억할만 해’로 남을 수 있길 기대한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